

베스트 셀러와 국어 교육

문 영 진*

<차 례>

1. 문제의 제기과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근 시각
2. 베스트 셀러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문제
3. 베스트 셀러의 소통과 관련된 특성과 교육적 개입의 전략들
4. 성숙한 독자에로의 도정(道程)

1. 문제의 제기과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근 시각¹⁾

베스트 셀러는 문자 그대로 대단히 많이 팔린 책을 말한다. 이러한 베스트 셀러가 국어 교육과 나란히 한 자리에 놓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불러냈다는 것은 얼핏 보면 기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항목을 나란히 놓았을 때 기이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된 느낌마저 있다. 그 정도로 엄숙주의적 흐름은 적어도 국어 교육의 학술 공동체에 서만큼은 낯선 것이 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정전에 대한 냉소 때문이라도 망설임 없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는 쉽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국어교육학회에서 발표된 본 논문에 대한 토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배풀어 주신 조선대학교 김혜영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리고 싶다.

않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한 논의 주문은 때늦은 감이 있고, 그런 까닭에 반가운 화두의 등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베스트 셀러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요즘 사람들의 독서 관습상 그것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이전보다 훨씬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베스트 셀러와 정전(canon)은 교육적 권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대척적인 지점에 놓여 있는 듯하지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 양자가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베스트 셀러와 정전을 한 자리에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문화라는 범주는 양자 사이에 적절한 매개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는 듯이 보인다. 문화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문화 연구는 바야흐로 진지한 국어 교육을 모색하는 데서 이상 외면하기 힘든 도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어 교육 분야에서 아직도 많은 방법론이 서로 경합하고는 있지만, 텍스트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미학주의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느낌이다. 자발적인(independent) 읽을 거리로서 정전에 대한 관심의 퇴조를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 정전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이 저하되고 있는데 비해, 정전이 아닌 텍스트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론적 접근이 연구자들의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라는 사정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편입 과정은 인문 사회 계통의 과목에 대하여 접근 방법의 갱신이라는 과제를 강요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이에 따른 인문적 문화의 죽음을 운위하는 목소리는 이제 진부한 뉘드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문주의적 문화의 퇴조가 아닐지도 모른다. 필요한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반인문주의적 풍토 가운데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것과의 만남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문화에 대한 접근의 실제적인 단초들을 열어나가는 일일 것이다. 한 마디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더 높은 삶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는 진정한 문화에 대한 요구는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생활 세계 안에서 구축하는 것은 지난한 것이며, 한 두 분야에서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닐지 모른다.

국어 교육은 복합체로서의 문화 체계 내부에서 문화적인 능력의 일부로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라는 소임을 담당하면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읽기는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중핵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읽기는 한편으로는 정보화 사회에서 삶의 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기술의 하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즐기고 삶의 의미를 음미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의 하나이다. 전자를 강조하는 것을 방편으로서의 읽기라고 한다면 후자를 강조하는 읽기에 대하여 지향으로서의 읽기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방편으로서의 읽기가 다분히 생존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향으로서의 읽기는 상대적으로 생활과 더욱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원용되고 있는 읽기 이론을 일폐하면 전체적으로 방편으로서의 읽기에 우선적인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도구적인 읽기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는 새삼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으면 학문의 탐구는 물론이고 생활의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획과 구상 및 점검 활동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 이론을 활용한 제7차 교육과정 문서나 읽기 이론서들은 읽기와 읽기 교육의 방법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탐구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²⁾ 내용 파악의 방법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에 이르기까지 구안된 다양한 방법들은 국어 교육을 위해서 소중한 실제적, 이론적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는 자신의 고유한 지향과 한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읽기 이론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

2) 노명완, 『국어 교육론』, 한샘출판사, 1988; 최현섭 외, 『국어 교육학 개론』, 삼영사, 1995; 이삼형 외, 『국어 교육학』, 소명출판사, 2000 등이 대표적이다.

을 것이다.

읽기 능력³⁾은 하나의 단순한 기능으로만 환원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활동으로서 읽기 능력에는 다른 모든 활동이 그런 것처럼 대상으로부터 정보와 같은 것을 단지 획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점점 능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 점점 능력으로서의 반성적인 능력은 단지 자신이 스스로 하는 행위의 과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단순한 상위 인지(meta-cognition)와는 그 성격이 구분된다. 읽기에서 반성적 능력은 읽기가 그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정신의 종합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기의 행위 과정에 대한 점점뿐만 아니라 행위 방식 그 자체 및 행위의 이념까지를 총체적으로 점점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의 당부당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전 존재의 변화를 점점하고 또 그러한 질적인 변모로의 추동을 자극하는 데 간여하기도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베스트 셀러를 읽기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읽기의 이러한 측면들도 감안하는 가운데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베스트 셀러 읽기에서 요구되는 읽기의 방법은 단지 주체적인 것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베스트 셀러 읽기를 포함하여 모든 읽기 활동에서 두 방향의 읽기는 서로 완전히 배척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배척되어서도 안 된다.

베스트 셀러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논의들은 그 수요에 있어서 매우 영성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적 관심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학과에서 베스트 셀러 현상에 대해서, 학위 논문이 양산되고 학술지에 앞 다투어 논문이 실리는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현상이다. 베스트 셀러와 국어 교육의 관계를 중심적 논제로 삼은 것으로는 박대호의 논의가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싶다.⁴⁾ 박대호는 베스트 셀러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피고 교육 현장에

3) 여기서 '능력'의 개념은 어떤 기능의 구체적인 발달을 의미하는 기술적 개념으로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aculty', 'capacity', 'ability', 'competence' 등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문영진, 「서사 교육의 방향 설정에 관한 일 연구」, 『국어 교육학』 13, 2001를 참조할 것.

서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교육적 개입의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를 펼친 바 있다. 그는 우선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근이 문학 이론의 흐름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면서, 논의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나뉜다고 파악한다. 하나가 베스트 셀러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고, 다른 하나가 그것의 소비자인 독자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다. 생산자 중심의 논의는 예컨대 1970년대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등 인기 문학이 상업주의를 근간으로 한 소비 상품임을 지적하고 그 결과 문화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취향을 결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든가, 작품의 사상적·미학적 가치보다 상품적 가치를 우선하고 독자의 흥미를 이용한 상품화 현상임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 중심의 논의는 생산자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된다.

반면에, 수용자 중심의 접근을 베스트 셀러의 결정 요인을 다원화한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예컨대 수용자 중심적 접근의 한 예로 다음이 거론되고 있다. 베스트 셀러 문학에서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심화에 대한 대응이 관념어의 과잉으로 나아가거나 지나치게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문학을 생산해 낸다고 파악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용자 중심의 접근은 베스트 셀러 현상에 감추어진 사회사적 의미와 집단심리의 심층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베스트 셀러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박대호는 베스트 셀러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또는 대중교육적 견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교육비평 *pédagogocritique*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 비평은 개인과 공동체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습자와 문학현상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문학교육의 한 분야'⁵⁾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베스트 셀러 현상은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될 수 없다.

4) 박대호, 「베스트 셀러 문학에 대한 교육 비평」, 민족문학교육회, 『문학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5) 같은 글, 232면.

베스트 셀러는 자신의 다양한 측면을 보임으로써 독자의 구매 심리에 호소한다. 결국 박대호의 이러한 입장은 골드만 등의 문학사회학의 입장에 접근하는 듯하지만, 단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베스트 셀러에 대한 당대의 논의를 흡수하여 베스트 셀러 현상이 청소년들의 개인적·집단적 심리를 반영하며, 그 이면에 훼손된 사회의 윤리와 가치의 체계를 비판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간 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전(canon) 중심적 사고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빼앗음으로써 현실과 유리된 교육에 경도될 흐름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베스트 셀러는 결국 문학적인 기준으로만 평가될 것이 아니라 사회 병리의 해결과 집단 심리의 해결을 위한 사회교육적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박대호의 논의는 베스트 셀러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의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베스트 셀러에서 교육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논의라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교육 비평의 개념이 모호하며 그 개념의 발전 방안 모색이 미흡하다는 점, 교육의 장(場)에서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쓰기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수업 내외의 장에서 가능한 학생의 활동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고, 학생과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련 양상에 대한 탐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을 커다란 논의의 한계로 갖고 있다고 지적된다. 박대호의 논의 이외에 베스트 셀러를 교육적 견지에서 다룬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 듯하고, 대중 문화나 키치에 대한 논의가 이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몇몇 논의들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⁶⁾

학문적 관심의 경중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베스트 셀러야말로 읽기 능력의 발전이나 주체성의 계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6) 윤여탁, 「대중문화와 교육」, 『선청어문』 21집, 1993; 최미숙, 「키치와 문학교육」, 『선청어문』 23집, 1995; 김성진, 「국어 교육의 대중문화 수용을 위한 시론」, 『국어 교육연구』 5집, 1998 등을 참조할 것.

수 없다. 베스트 셀러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가장 많은 접근 기회가 주어지는 텍스트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피해가기는 힘든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대상이다.⁷⁾ 그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의 이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하 이 자리에서는 문화론과 미디어론을 바탕으로 해서 베스트 셀러와 국어 교육의 관련 양상과 교육적 개입의 국면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베스트 셀러 작품에 대한 수용자 요인 분석이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로 상위인지적인 측면에서 베스트 셀러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교육적인 개입 지점을 계기적인 차원에서 추출하고, 베스트 셀러와 관련해서 독자의 발전 도정에 대한 간략하나 그림을 그리는 데서 멈추고자 한다. 개별적인 베스트 셀러들에 대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분석에 근거해서 더욱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계기들을 추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가 될 것이다. 베스트 셀러 작품의 수용 체험에 대한 분석이나 베스트 셀러 지각 체험의 모순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고찰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7) 그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는 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텍스트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어떤 개인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이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신화와 같은 텍스트는 근대 사회의 관념으로 보면 특권적인 베스트 '셀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가 전 근대의 어떤 사회의 개인에게 그 사회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결정적인 가능성은 오늘날 잘 연구되어 있다. (단군 신화의 수용과 한 민족의 정체성 수용의 밀접한 관계) 근대 사회에서도 전근대사회에서의 신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신화 현상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롤랑 바르트, 정현 역, 『신화론』, 현대미술사, 1995 참조) 많은 베스트 셀러가 신화 작용에 의해서 유지된다.

2. 베스트 셀러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문제

베스트 셀러를 교육의 장에 도입하는 것이야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과연 다룰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룬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진정한 당혹감은 이 대목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문은 개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념의 전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가정의 체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라는 이질적인 체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몇 개의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첫째, 교수·학습론과 교육 사회학의 분리 문제.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사회과학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그 논의와 무관하게 연구의 실제에서 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과학으로서 교육학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국어 교육은 사회적인 활동으로서의 국어⁸⁾로 매개로 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언어 활동은 이미 국어 교육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literacy)의 발달에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래 집단 그리고 일반 사회의 영향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⁹⁾ 물론 국어활동이 사회적 현상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에서 중핵적 활동 역할을 하는 교수·학습 자체가 중핵적인 것이

8) 사회적인 활동으로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과 텍스트 사회학의 연구자들 외에 바흐친의 언어 철학과 특히 비고츠키의 다음을 참조할 것. 비고츠키는 아동 언어의 발달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의 속내말(내적 언어)조차 사회적인 말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L.S.비고츠키, 신현정 역, 『사고와 언어』, 성원사, 1988, 19면과 여기 저기 참조.

9) J.A. Langer ed., *Language, Literacy, and Culture: Issues of Society and Schooling*,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7.

아니라거나 무화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역시 교실 수업에서의 다양한 활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스트 셀러도 텍스트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생산과 소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사회학으로부터 방법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것은 국어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베스트 셀러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선호가 어느 개인의 선호 기능성에 대한 암시를 줄 수는 있어도 그 선호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베스트 셀러 현상에 대한 접근에서 연구의 거시적인 영역과 미시적인 영역은 상호독립적이지만 개인의 선호가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규정된다는 점에 유념하면 양자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¹⁰⁾ 마찬가지로 베스트 셀러의 교수·학습론과 베스트 셀러에 대한 국어 교육의 사회학은 각기 미시적인 영역과 거시적인 영역을 이루면서 구분되지만, 분명 양자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상호 작용 중심론과 텍스트 중심주의.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핵적인 활동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학생-교사 상호 작용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는 태도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의 절차상 적지 않은 교수·학습 연구물은 어느 정도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에 중심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기는 해도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한 앞에서 지적인 것과 같은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타당하다. 교육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독립된 것으로 사고하거나 절대적으로 특권화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 텍스트 중심주의적인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텍스트 중심주의를 취할 경우 학생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 곧 교수·학습의 효과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며 나타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체가 제시하는 문

10) 골드만이 말하는 문화 창조에서의 '통개인적 주체' 개념을 참조할 것. L. 골드만, 『현대사회와 문화창조』 참조.

제틀(problematic)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서 텍스트는 단지 분석하고 쉽게 풀어서 이해되어야 하거나 전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텍스트를 스스로 이해하거나, 이해하게 해 주거나,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따라 학생은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태도를 경험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 공간 내부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미학적 효과나 사회적 효과의 문제를 학생들이 또 다른 교육적 활동을 매개로 풀어나가거나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에 관한 반성적이며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근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베스트 셀러의 생산에 대한 관점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다. 곧, 베스트 셀러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서 베스트 셀러를 수용의 대상으로만 미리 전제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생산에 미친 여러 요인들에 대한 탐구와 그 텍스트가 주는 효과를 동시에 사유하면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어 교육학의 주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국어 교육의 주체로 교사와 학생을 상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거기에 역시 단서가 붙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교사와 학생의 활동도 어떤 맥락에서, 다시 말하면 어떠한 힘들의 효과 내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크기의 돌을 던지지만 돌이 날아가는 힘은 돌을 던지는 장소의 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는 동일한 노력과 열정으로 텍스트에 대한 수업을 행하지만, 그 효과는 구성된 교육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텍스트는 그 내부뿐만 아니라 그것의 외부도 동시에 사유할 수 있어야 하고¹¹⁾, 교육 주체의 상황들에 따라서 텍스트를 받아

11) 알튀세에 의하면 이데올로기의 외부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조건지워진 주체의 생존 조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체의 상상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그 상상적 위치의 효과에 대해서 사고할 수 없다면, 다른 상

들이는 지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로서 베스트 셀러의 효과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범주로 '이데올로기'와 같은 개념을 국어 교육의 장에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다.¹²⁾ 교육의 주체(subject)는 교육의 실행자(agent)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교육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자신의 주체성이 모두 발현된다고 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별자로서의 개인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고하기 위해서는 개별자가 속한 구조와 그 힘들이 작동되는 장(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도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평면 위에서 재생산론의 시각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스트 셀러 텍스트가 텍스트 자체만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면, 텍스트에 대한 감동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가지거나 텍스트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여지가 협소해진다. 그리고 왜 그 텍스트가 선택되었는지, 왜 하나의 베스트 셀러가 정전이 되거나 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여지가 협소해져 버린다. 읽기 이론의 연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텍스트의 재생산적인 맥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와 상호텍스트성 문제.

앞에서 텍스트 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했지만, 문자 텍스트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생각만큼 단순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매체가 등장한 이래 정보의 저장, 운반, 활용 기능에서 문자 텍스트의 우월한 지위가 기본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은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 인간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기술이 인간을 위한 봉사보다는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技術)로서의 매체는 한 사회의 구성원을 위해서 한 사회가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다. 그 매체는 사회 구성원을 위해서 봉

상적 위치 설정의 타당성과 그것의 유익함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2) 김상옥,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1996; 김성진, 앞의 논문 참조.

사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사회에 다시 작용을 가하기도 한다. 이 후자의 측면 때문에 기술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적 변화는 불가역적인 것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는 필연화하며 그것은 물질적으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오늘날 디지털적 소통은 정보의 공유를 위시한 강점을 제공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의 익명성과 성찰적 능력의 약화라는 측면으로 인하여 인문 계통의 과목에 긍정적 효과만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그 자체로 특히 인문학적이니 연구자들에게 묵시록적인 경계나 외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술의 효과로 인하여 고착, 결정된 사회 구조의 어떤 측면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불가역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이고 만약에 어떠한 경향이 불가역적이라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둔 채 그것의 통제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사고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화가 종래의 더욱 친밀한 소통 방식을 제한한다고 해서 전화 사용에 반대하는 경우가 결과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도 그 결정성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불가역적인 삶의 조건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생산의 조건과 책에 관한 디지털적 소통이라는 조건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오늘날의 베스트 셀러 현상에도 이러한 측면은 관찰된다. 정전(canon)이 사회적으로 결정화·제도화되어 오늘날 막강한 권위를 행사하게 된 것도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의 힘과 그에 대한 대응의 결과인 민족주의¹³⁾적인 생존 논리와 그 이념의 효과라는 것과도 비슷한 현상이다.

오늘날 소통의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통 매체의 발전은 구어에 의한 소통 단계, 문자에 의한 소통 단계, 대량

13) 구조로서의 세계 체제와 민족주의의 관련에 대해서는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역, 『포스트 콜론』, 삼인, 2002를, 인쇄 매체에 의한 소통과 근대 민족주의의 발생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2를 참조할 것.

인쇄 매체에 의한 소통 단계, 전자 매체에 의한 소통의 단계를 거쳐서 인터넷에 의한 실시간적 전지구적 정보 소통의 단계에 도달하는 식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소통 방식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전의 소통 방식들이 모두 용도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전의 소통 방식들이 잔존한 채 새로운 방식과 결합해서 소통 방식은 중층화되고 복잡화되어서 이전의 단계(들)을 나선형적(螺旋形的)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단순화했던 맥루한은 전자 매체 단계를 구어적 소통 단계의 재래로 보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는 계기적으로만 그러할 뿐임은 물론이다.

매체 교육은 오늘날 교육계의 여러 과목들 간에 가장 중요한 영토화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각과 교육학 내부에서 과목의 전체적 체계에 조응하는 적절한 방법과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소통 방식이 복잡화, 중층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모든 소통이 다중 매체적인 소통이라고까지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같은 소통 방식 내의 상호텍스트성이나 이질적인 소통 방식이나 미디어 장르나 발화 장르(Speech Genre) 사이의 소통은 본질적인 텍스트의 존재 방식이나 존재 조건이 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매체 공간 내부의 소통 내용을 직접적인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삼거나, 직접 소통에 참여하거나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을 베스트 셀러 교육의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자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베스트 셀러의 소통과 관련된 특성과 교육적 개입의 전략들

베스트 셀러는 주로 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판을 찍어낼 정도로 특별히 성공한 책을 의미한다.¹⁴⁾ 흔히 베스트 셀러는 그

것의 현존을 매체 위에서 보장하는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 의해서 출생 증명서와 주민증이 발급된다. 그것은 '출간 직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관심을 끌만 하거나, 유행, 취향, 필요, 선전 등에 의해 특히 많이 팔리는 책을 말하는데, 소위 스테디 셀러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¹⁵⁾ 베스트 셀러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서적 시장의 편의에 근거해서 붙여진 명칭이며, 주로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스트 셀러는 그 자체가 소통 매체인 책의 과장되고 부풀려진 형태이다. 베스트 셀러는 허구적인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면 대중적인 문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키치와 정전을 스펙트럼의 양극으로 해서, 그 사이에 신파극적 흐름들을¹⁶⁾ 포함한 다양한 변이형들을 거느리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소통은 소통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만남이 과정이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대중적인 문학은 진정한 소통 공동체에 의지해서 어우러질 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¹⁷⁾ 오늘날 이러한 '위대한 전통'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¹⁸⁾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베스트 셀러 현상에는 깊은 대중적 소통의 존재 여지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접근을 위해서는 책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책이 근대 사회에 와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소통 매체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상품 형식을 통해서 상품 순환의 장(場)에 등장했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상품이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책이라는 상품은 가

14) 베르너 파울슈티히, 「베스트 셀러의 정의」, 이임자 편역, 『베스트 셀러의 진실』, 경인문화사, 1998, 22면.

15) 문예 사전의 정의. 같은 책, 46면.

16) 이두현, 『한국신극사 연구』, 일조각, 1972; 최원식,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임형택·최원식편,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17) 예컨대 셰익스피어의 극들을 정점으로 한 영국 엘리자베즈조 비극들은 그 시대에는 대중적인 베스트 셀러쯤에 해당되었겠지만, 오늘날 중심적인 정전이 되었다.

18) 대중 문화, 고급 문화, 저급한 문화의 관계 및 소통의 위대한 전통에 대해서는 Williams, R., *Communications*, Penguin, 1976, 109-116면 참조.

장 독특한 성격을 가진 상품의 하나로, 주로 그 정신적 가치 때문에 소비되는 상품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물질적 재화와는 달리 책은 물질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많은 상품이 식료품과 같이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 맞춘 물질적 변형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책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다른 상품일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책이 상품이고 더구나 베스트 셀러가 대량적인 상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베스트 셀러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생산될 수 있는 상품 형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순환에서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진 것이 바로 선전이나 홍보의 역할이다. 베스트 셀러의 피결정성에서 선전의 효과가 결정적임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선전은 선전을 수용할 수 있는 약호(code)와 그 약호와 선전의 전언(메시지)을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의 현존에 의해서 비로소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량적인 소통을 감당할 수 있는 채널의 존재가 있고서야 비로소 베스트 셀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베스트 셀러의 순환에 대해서 이와 같은 특성을 받아들인다면, 다음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야콥슨의 소통 모델에 의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⁹⁾

	약호(code)	
발신자 -	전언(메시지)	- 수신자
	접촉(채널)(contact)	
	상황맥락(context)	

이러한 도식은 표현-전달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일방적이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소통이 기본적으로 순환(feed-back)적인

19) 로만 야콥슨, 김태옥 역, 『시학과 언어학』, 이정민 외,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 1976.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것일 수만은 없다. 문제는 이 소통 도식이 결국 정보의 순환만을 주로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도식의 용도를 다른 특성을 가진 순환으로 확장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책의 순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의 도식에 기대어서 베스트 셀러 현상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명료하게 설정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위의 도식을 하나의 '유비'로 사용해서 베스트 셀러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소통적 간섭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조응하는 교육적 개입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을 수는 있다는 것이다.

〈발신자〉는 저자와 매개자인 출판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관계는 복잡한데, 만약에 서적 상품의 정신적 욕구 충족이라는 본래적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중시된다면 저자와 매개자인 출판사 사이에 특별한 구분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군중심리학이나 문화산업론은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서적의 순환에 개입하는 정도를 이런 식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반면에 수신자의 상품에 대한 선택성에 대해서까지 의미를 두고 거기에서 문화적인 유의미성을 구하려는 흐름도 존재한다.

〈약호〉는 여러 층위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크게 두 층위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는 책에서 사용된 민족 언어로, 두 번째는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도식이나 예술적 취향의 코드라는 의미로 이해 가능하다. 첫 번째 부류인 민족적 코드로서의 언어는 읽기가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책의 독서에서 보통은 무시되어도 좋은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스트 셀러가 상당한 정도로 근대적인 세계체제 하의 형성물이고 인쇄 자본주의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요소 또한 무시될 수 없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집단적인 심성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고, 한국 사회가 특히 '단일 민족'의 신화로 상징되는 민족 신경증에서 자유로울 수 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요인에 근거한 베스트 셀러가 출현할 여지는 많다. '단군', '고구려' 관계, 세종대왕,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민족적인 문화 영웅이나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한 천재가 등장하는 서사나 년픽선류 베스트 셀러가 이에 해당한다.²⁰⁾ 두 번째는 하위 집단이나 계층적인 약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화이트 칼라나 주부, 학생층의 취향을 자극하는 베스트 셀러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에 전자(민족)에 비해서 후자(하위 계층)가 자신의 정체성이나 차이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교육적 개입의 지점을 고정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합리화의 맥락을 해체하는 '허구화'²¹⁾와 같은 해체나 상대화의 전략을 후자에 대해서는, 정체성의 '심화' 전략(허구화나 '분리화'와 반대되는 전략)을 교육적 개입의 방향이나 출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물과 같은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입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접촉〉(채널)은 베스트 셀러의 성립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콥슨의 모델에서 접촉을 전선(電線)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로 이해하든 이든 장(場)과 같은 추상적인 형태로 이해하든 일단 채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근대적인 소통 방식을 담당하는 대중적인 소통 매체들이다. 대인 접촉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문과 잡지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 매체가 오늘날 베스트 셀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대인 접촉(입소문)을 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근대적인 대중 매체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베스트 셀러 현상에 관여하는 폭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전언'의 지위를 상회하는 중핵적인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베스트 셀러의 형성에서 매체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대중 매체에 의해서 시성화(諡聖化)되지 않

20) 미국의 경우에 이러한 '민족주의에 요인의 베스트 셀러는 1차 대전 중인 1917년에 전쟁 문학(War Books)이라는 형태로 출현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임자 편역, 같은 책, 390면 이하.

21) 이하에 대해서는 '4장 활동'에서 언급할 것이다.

은 베스트 셀러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대중 매체는 전언의 엄청난 증폭 효과를 가진다. 이 대량화의 효과를 기술적인 장치로 하고 각종 서사에 의해 형성되는 부차적 텍스트로 인한 각광 등의 방법을 내용적인 장치로 하여 하나의 책은 베스트 셀러라는 위치에 도달할 자격을 일단 가지게 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책은 베스트 셀러가 되기 위해서 뉴스 가치²²⁾를 가진 서사들을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증폭해 내는 중심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십이나 비평문과 같은 서사체나 담론은 편집 과정 등 복잡한 채널 속의 채널을 거쳐서 기사의 성립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²³⁾ 이러한 기사들이 질적인 변환을 일으켜 실질적 구매자로부터 폭발적인 응답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다름 아닌 베스트 셀러인 것이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실상과의 조화'나 '평가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상호텍스트성과 연관된 활동이 교육적 개입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베스트 셀러에 대한 이러한 개입 전략을 활용하면, 작품에 대해서 비판적 접근한다든가 그 작품이 주는 감동 등을 주관적으로 혹은 상호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수업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베스트 셀러에 대해 감동한 이유에 대해서 공적인 토론(쓰기든 말하기든)이나 그 감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활동 등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접촉' 요인을 고려한 바탕에서 가능하다.

〈(상황)맥락〉은 전언이 발해지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 책이 등장하는 상황에 힘입어 그 전언들은 특별히 빛을 발하는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맥락'은 수신자 상황이나 '전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상황 중에서 거시적 상황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예컨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성공(경제적 불황의 상황), 히딩크 관련 서적의 성공 등(월드컵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양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방법이나 토론의 방법을 통하여 세부나 부분적 체계나 전체를 문제삼는 접

22) 뉴스 가치에 대해서는 미첼 스티븐스, 이광재 외 역, 『뉴스의 역사』, 황금가지, 1999를 참조할 것.

23) 기사의 성립에 관해서는 게이 터크만, 김홍수 역, 『메이킹 뉴스』, 나남, 1996 참조.

근하는 방법이 교육적 개입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NIE Newspapers In Education 등의 방법을 활용한 토론 등이 가능하다).

〈전언〉 그리고 〈수신자〉에 관한 요소들은 매우 복잡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에 걸맞는 교육적인 개입 전략을 구안하기가 쉽지 않다. ‘전언’의 요소는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수행되던 일로 그 요인들의 수효가 많아서 일반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개입 전략은 일반적인 읽기에 대한 개입 전략과 유사해지는 측면이 크다. 수험서, 영어 학습서, 종교서적 등의 베스트 셀러화는 특히 ‘수신자’와 관련되어 베스트 셀러로 형성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수신자 요인은 상황적이며 단기적인 수신자 요인과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수신자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험서 등은 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정념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보편적인 희망과 공포에 관련된 것이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전언’이나 ‘수신자’ 요인과 관련된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는 교육적 개입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복잡한 매개나 변환을 요구하는 것이 될 공산이 크며, 읽기 활동 일반과 유사한 개입 전략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베스트 셀러 요인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베스트 셀러가 매체 환경을 포함한 소통의 과정 속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교육적 개입의 지점들을 발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 중에서 많은 요소들은 강조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소통 이론에 근거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소통의 맥락에서 파악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한 장점을 가진다. 그것은 예컨대 어떤 텍스트가 ‘생산’되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텍스트의 외부를 사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텍스트의 외부를 상상할 때 다른 텍스트에 대한 상상적 요구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읽기 문제를 개인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위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베스트 셀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텍스트에 대한 장르론적 접근을 상당한 정도로 전제하는 것이다. 장르론적 접근²⁴⁾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텍스트를 이해하게 해 줌과 동시에 특정의 텍스트가 인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할 것이고, 학습 독자들이 자신의 텍스트 수용 방식을 이해하고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과는 다른 개인의 독서 습관에 대한 상위인지적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자신의 독서 습관에 대한 성찰적 시각을 가지게 해 줌으로써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에 대한 생산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풍부한 계기를 가질 것이다.

4. 성숙한 독자로의 도정(道程)

이상에서 베스트 셀러의 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과 그런 효과들을 감안한 가운데 가능한 교육적 전략의 열개를 그려 보았다. 여기서는 그 절차가 중복되는 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교육적 개입의 근거에 대해서 더 살펴 본 다음,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하습 독자의 독서 발전 전망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책은 일단 매우 잘 팔리는 책(베스트 셀러)과 그렇지 않은 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베스트 셀러에는 책으로서의 상당한 품격을 갖춘 것과 키치(Kitsch)적인 것이 포함될 것이다. 잘 팔리는 책 중에서 상당한 품격을 갖춘 것은 차후에 정전의 자리에 편입될 준비를 하게 된다(예컨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한편, 베스트 셀러는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키치는 전자와 주로 관련되지만, 원래는 미술품, 건축물 중에서 쉽게 이해되고 편안히 즐길 수 있지만 예술적 규준에 미달하는 작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키치는 특정한 작품을 지칭한다기보다 근대예술의 특성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하나의 정신 상태나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24) Paltridge, Brian, *Genre, Frames and Writings in Research Settings*(John Benjamin Publishing Co., 1997)을 참고할 것.

개념이다. 한 미학사전은 키치를 아니면서 긴 채하는 것, 곧 사이비 예술로 규정하고, 그 특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너무 쉽다는 점, 형식주의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점, '거짓말이고 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²⁵⁾ 이러한 키치의 특성은 일부의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베스트 셀러는 앞에서 살핀 대로 정전적인 것과 키치적인 것을 양극으로 한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일반적인 언어 감각이 베스트 셀러라는 표현에서 일종의 경멸적 태도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²⁶⁾, 베스트 셀러는 정전을 포함하는 매우 대중적인 의미의 문학이나 비문학적인 도서라는 본래적인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재미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즐기는 그저 그런 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키치에 대한 사람들의 양가감정적 태도와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소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읽기의 규범을 읽히고 있거나 미적인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은 독서층의 생활 감각일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베스트 셀러에 대한 태도가 위와 같은 식으로 일률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미적 규범에 대한 약화에 익숙해 있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읽기의 규범(약호)에 익숙하지 못한 독자는 베스트 셀러를 일종의 지향점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 베스트 셀러 목록은 매체가 제공하는 통계의 권위를 바탕으로²⁷⁾ 목표의 지위로 군림하는 수도 있다. 이 통계에 원천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근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학문 체계 등 총체적인 표상 체계이겠지만, 이러한 표상 체계 중에서 더욱 일상적이고 친근한 권위를 가지는 것은 텔레비전을 필두로 한 대중 매체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위력을 바탕으로 할 때 예컨대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느낌표」가 베스트 셀러 판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²⁸⁾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베스트 셀러는

25) G.C.F. Beam, "Kitsch", M. Kelly ed., *Encyclopedia of Aesthetics*, vol.3, Oxford Univ. Press, 1998, pp.65-70.

26) 신경림, 「독자들이여 베스트셀러 아닌 진짜 시를 만나라」, 『한겨레 신문』 2003.3.9.

27) 부르디외, P., 현택수 역,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1998 참조.

근대적인 삶의 여가와 문화적 욕구의 어떤 부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문화적인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저수지의 물에서 지배적인 성분을 찾으려면 역시 키치를 들 것이다.

일찍이 칸트는 『판단력 비판』을 통하여 근대 미학을 정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책에서 그는 쾌적한 기술agreeable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미적 예술fine에 대한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쾌가 한갓된 감각으로서의 표상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쾌감적 기술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미감적 기술aesthetic art은 쾌적한 기술이고, 또 쾌가 인식 방법으로서 표상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인 경우에는 그것은 미적 예술fine art이다. 쾌적한 기술은 단지 향락enjoyment만을 목표로 삼는 기술이다.'²⁹⁾ 유쾌한 환담의 기술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 환담은 자기가 말하는 것에 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이는 곧 그것이 노리는 바가, 나중에 반성하고 되풀이하여 논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재(題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⁰⁾ 여기서 쾌적한 기술은 키치의 개념에 상당히 근접하는 개념인 바, 여기서 칸트는 근대 예술의 발생 지점과 아울러 그 분화된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근대 예술 최초의 이론가인 동시에 최초의 키치 이론가로 말해진다.³¹⁾ 생각건대 그렇고 그런 환담들은 쾌적한 기술의 사회적 계기와 그에 참여하는 개인의 심리적 동기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에 발생하고 있던 살롱의 문화와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와 이야기되는 내용간의 책임 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살롱의 문화에 당시에 형성되고 있었던 여론의 방수로와 같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칸트가 최초의 키치 이론가였다는 위의 판단에 동의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베스트 셀러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키치적

28) 한기호, 「2002년 출판계 결산」, 『출판문화』 2002.12월.

29) 칸트, I. 이석운 역, 『판단력 비판』, 박영사, 1994, 184면. Kant, I., tr. Meredith, James C., *The Critique of Judgement*, Encyclopaedia Britannica, 1955. §44.

30) 같은 책, 같은 곳.

31) G.C.F. Beam, 앞의 글.

현상 가운데 놓인 무반성성과 무책임성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칸트가 말하는 계몽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행동이다. 쾌적한 기술에 무반성적으로 안주하는 태도는 키치에 무반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태도와 심리적으로 등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태도는 무반성성과 성숙하지 못한 정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계몽 정신을 '계몽'하는 것이 오늘날 베스트 셀러에 대한 읽기의 문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대목이 된다.

근대적 여론의 발생은 민주주의를 위한 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었다. 하지만 동일한 현상의 반대편에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천민을 발생시킨 것³²⁾도 사실이다. 그것은 기계복제예술이 마찬가지로 예술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취향의 민주화까지 획득해 내지 못한 천민들에게 키치를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 현상에 정확히 대응된다. 천민은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서 자신의 읽기 능력이나 취향 능력에 대한 감각을 소유하지 못한 생활 태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탄생하고 성장한다. 결국 천민의 개념이 취향이나 의견의 발달을 성취해내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 한 마디로 계몽 이전의 인간을 유비(類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반성적 판단력이 매체에 의한 증폭 효과를 정확히 판별할 줄 아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성숙한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수동화는 회피되거나 적어도 의식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현상인 것이다.³³⁾

이러한 베스트 셀러의 양 방향과 그 간극들 사이에 교육적 활동의 커다란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습 독자가 주체적이며 책임있는 독자의 자리에 서는 것, 넓은 의미의 '계몽'적인 독서 태도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정전 교육

32) 자존감의 상실을 천민의 필요 조건으로 이해하는 헤겔에 근거한 것이다. 헤겔, G.W.F., 임석진 역, 『법철학 II』, 지식산업사, 1990, 373면.

33) 앞에서 말한 매체에 의한 증폭 효과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광고(소위 '주례사' 비평이나 그에 대한 논평 등)에 대한 비평의 넓은 활동 분야를 형성한다. 대중 매체가 미치는 이러한 효과 중에서 주목할 것은 그것이 매체 이용자의 수동화를 낳는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세르즈 모스크비치, 이상률 역, 『균중의 시대』, 문예출판사, 1996, 299-313를 참조.

에서든 베스트 셀러 교육에서든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야 할 길'은 학교 교육에서 '완성'되기는 쉽지 않은 매우 높은 수준의 목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편으로서 읽기와 지향으로서 읽기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고, 진정한 읽기란 후자적인 읽기 태도를 습관으로서 형성하는 것이라면 베스트 셀러라고 해서 그것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베스트 셀러 가운데서 저급한 대중 문화로서의 베스트 셀러인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읽기가 습관으로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읽기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읽기가 즐거운 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방편으로서의 읽기에서와는 반대로 즐거운 시간으로서의 읽기를 생활화하는 활동이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의 장에서는 정교한 읽기나 읽기에 대한 평가 행위를 잠시 유보하고, 읽는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드는 것³⁴⁾이 나올 수도 있다. 베스트 셀러는 이러한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가 반복되고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한 선별의 시각은 어느 정도 길러질 수 있다. 물론 발전은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된 다양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점에서는 베스트 셀러를 읽는다는 점보다도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말하기'나 특히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읽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베스트 셀러에 대한 자기 의식의 기회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정전 학습과 같은 활동은 하나의 표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전에 대한 읽기 방식이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표준이나 전범을 제공하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진전된 토의를 위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4) 박지현, 「일본의 청소년 독서운동」, 『북페덱』 3, 2003, 242면. 일본의 청소년 독서운동에서는 아침 독서 시간에 '감상문이나 기록 등은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게으른 독자에서 자각적이며 비판적인 독자로 나아가는 것이 읽기 교육의 목표라 한다면, 독자의 발전 전망에 대한 탐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성숙한 독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읽기를 즐기는 독자라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읽기를 즐기는 독자가 된다는 것이 만화나 가벼운 읽을 거리나 유행 서적으로서 베스트 셀러의 독자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세심하게 교육의 장이 구성될 수 있다면,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베스트 셀러의 독서가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인(independent) 독서 습관이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오늘날의 매체 문화가 수용 주체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상황과 대비할 때 특히 그러하다면, 베스트 셀러를 수업의 장에 끌어들이는 것을 회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텍스트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홍수 속에서 개인의 즉자적인 세계 읽기의 태도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서 이와는 대립적인 다른 읽기 태도도 형성될 수 있다.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독서 상황에 대한 객관화이다. 이러한 객관화를 통해서 독자는 자신의 읽기 태도를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 그 객관화의 전제 가운데 하나가 자신과 타자의 텍스트 체험 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은 독자의 발전 도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체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도정에서 교사는 이러한 연극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혜로운 연출자가 되어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지각과 이해는 독자의 자발적인 몫이지만, 그러한 지각과 이해의 발전 전망을 설정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위한 명석을 깔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것은 교사 고유의 몫일 수밖에 없다. 베스트 셀러에 대한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학생들의 텍스트 체험을 그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독서 체험과 토론 활동에 진지함을 부여하고,³⁵⁾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체험의 발전 전망 하에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가지

고 유쾌하게 놀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수업의 연출자로서 교사의 양보할 수 없는 소임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수업이 나 수업 밖의 장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한 토론회와 같은 것을 조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장을 더욱 확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베스트 셀러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가장 친근한 소재이며, 베스트 셀러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베스트 셀러를 수업의 장에서 다루는 의의는 그 자체로 작은 것이 아니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개입을 조직하는 주체는 단지 정전뿐만 아니라 베스트 셀러나 대중 문화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론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인간 행동의 위상을 점검하고 발전 전망을 기획하는 도구는 이론 이외의 다른 것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론이나 문화론과 같은 이론적인 도구를 습득한다는 것은 교사 자신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독서 체험과 그 발전 도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무기이다. 아울러 독서 습관의 발전 도정이 대단히 복잡하면 서도 모순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도 이론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 35) 텍스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개인의 변모는 불가능하다. 정신 분석과 같은 치료 행위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서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으면 치료 행위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P. Ricoeur, tr. D. Savage, *Freud and Philosophy: An Essay on Interpretati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참조) 진지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단일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 라디오 같은 것을 듣거나 하지 않고 책만을 읽는 전일적인 체험을 하는 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독서만을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매체 시대인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하다.

〈초록〉

베스트 셀러와 국어교육

문 영 진

1. 베스트 셀러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흔히 대중 문학(popular literature)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의 정전(canon)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베스트 셀러에 상대적으로 친근해진 감이 있다. 베스트 셀러를 교육의 장(field)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베스트 셀러는 이미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서 구조의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개입해야(intervention)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개입의 근거, 개입의 정신, 개입의 방법)

2. 그 개입의 시각(정신)은 베스트 셀러에 대한 접촉이 성숙한 독자로 가기 위한 디딤돌(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갖게 하는 매개적 장치로, 그리고 그 강점과 단점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그런 점에서 베스트 셀러를 공론의 장(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말하기, 베스트 셀러에 대해서 글쓰기)으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

4. 미디어 속에서 위치해 있는 베스트 셀러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자체의 효과와 베스트 셀러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하면서 학생들의 베스트 셀러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5. 그리고 정전이나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 하에서 다루어야 한다.

6. 그리고 생산의 관점에서 베스트 셀러가 생산되는 방식을 탐색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종래의 미학적인 접근

근보다는 문화론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의미할 것이다.

【핵심어】 베스트 셀러, 국어교육, 문화론, 교육적인 개입, 성숙한 독자

〈Abstract〉

Best Seller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Mun, Young-jin

1. Best sellers can be defined as books that sell in very large numbers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y have been often treated as popular literature and their value has generally been underestimated. A growing distance between young generation and canon has brought them relatively close to best sellers. Even before the controversy over the possibility of bringing best sellers to the educational field, they have greatly influenced students and deeply intervened in their making emotional structure. For this reason, it has become the reality that we have to intervene in best sellers from the educational viewpoint, for example, the matters concerning justification, philosophy, and approaches of intervention.

2. The philosophy of the educational intervention into the best sellers can be that we should approach to best sellers as a mediated device which can bring a joy of reading, examining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of reading at the same time. We also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tact with best sellers can play a role of mediator which help readers become a mature, critical reader.

3.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the opportunity of inviting best sellers to public discussion such as talking and writing about best sellers. These opportunities should be

extended. This is also true of best sellers in the media. Approaching with awareness of the effect of the media, positive or negative, we should help students seek for the meaning of best seller books.

4. Best sellers should also be treated in relation to other texts such as canons by using strength and weakness, associated effect, and narrative analogy etc.

5. We also need to analyze the way of producing best sellers in view of production(writing). In this respect, the cultural studies may be more effective and meaningful than the traditional aesthetic approach.

【key word】 best seller,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studies, educational intervention, mature reader